

2001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建設交通局

日 時 2001年11月30日(水) 10時04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10時04分 監査開始)

○委員長代理 吳弼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강평까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감 관계공민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시간을 최소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구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에 역점을 기울인 오늘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로 건설교통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수감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

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康亨宇 建設交通局長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建設交通局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土木課長 鄭璣哲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委員長代理 吳弼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康亨宇 建設交通局長께서는 본 서약서를 본 위

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康亨宇 建設交通局長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康亨宇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1월부터 큰 눈도 있었고 큰 가뭄도 있었는가 하면 수해로 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동안 다사다난했던 이 때에 그대로 큰 대과 없이 건설교통국 간부로서 지휘자로 이렇게 이끌고 온 여러 간부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을 맡고 있는 朴起用 씨, 土木課長을 맡고 있는 鄭璣哲 씨, 교통행정과장을 맡고 있는 高成九 씨, 교통지도과장을 맡고 있는 李基朝 씨, 팀장으로서 과거에 계장으로 불린 계장님들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김동훈 씨, 과장담당주사 채인기 씨, 보상담당주사 장성만 씨, 자리가 비좁아서 다 들어와있지 못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계장님은 안하셔도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생략할까요? 특별히 토목과는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토목과의 계장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 이자화 씨, 하수관리담당주사 김준표 씨, 치수담당주사 김창기 씨, 도로굴착담당주사 윤주형 씨, 도로조명담당주사 조동목 씨 이상 지하수담당주사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建設交通局 業務報告

(建設交通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理 吳弼根 康亨宇 建設交通局長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

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직원들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고가 있으신데 새삼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행정장비 현황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인원이 정원이 175명이어야 되는데 현인원이 158명입니다. 그래서 한 17명 정도가 부족한 현인원을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건설관리과나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우리 종로구의 총인원은 작년도만 해도 1,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자료를 보면 1,400명이라고 해서 100명이 늘었는데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17명 정도가 부족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색출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국의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어떤 팀장은 2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 팀장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을 통해서 또 기타 다른 구에 있는 희망하는 직원들을 수배를 해가지고 계속 교섭을 해갔고 확보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직원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175명이 되어도 사실은 부족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의 전환으로 인해서 구로 모든 것이 이관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 인원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열심히 직원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감사자료 289페이지 도로,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라고 해서 2000년도부터 2001년 10월 현재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체납액이 시 수입이 7억 4,000만원, 구 수입이 8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보고를 보면 92%의 11월 10일 현재 92% 징수를 한 것으로 쉽게 보면 이중장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10월말에 자료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고하는 것은 11월말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보고를 하실 적에 상반되지 않게 맞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도로가관점수 및 최초소유자와 현재소유자 점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290쪽입니다. 현재 가관수요가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가관대는 수요가 절대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신규부과가 불가하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일정합니다.

○吳錦南委員 그런데 최초의 소유자는 145명이고 현재 소유자는 192명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의 소유자와 최초의 소유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지금 보도상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로판매대, 구두담이 박스, 교통카드 충전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88~'89년 사이에 제작, 설치가 된 것이고 구두담이 박스는 '91년, 교통카드 충전소는 '77년~'85년 그 사이에 설치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짚개는 10년, 길개는 24년 정도가 경과된 사항인데 원래는 소유권의 전매나 전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런 개인적인 전매나 전대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번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을 해서 현재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 동안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도권 하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초 소유자란 것은 그 세가지 종류별로 설치된 최초의 소유자, 최근에 설치됐을 때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하고 최근 금년 10월달에 조사했던 현재 소유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치유가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조례로.

○吳錦南委員 그러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의변경을 전부 교체했다는 겁니까?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해줬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가관점뿐 아니라 바로 주위에 있는 가관점에서 음료수나 신대 이런 걸 더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현재 가관대에서 신문판매대나 냉장고 이런 것을 외부에 내놓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재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속을 했을 때는 집어넣지만 다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별도의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불법들출간판 발생 건수 및 단속 실적과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체납액을 보면 물론 부과도 있고 징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종로구에 보면 전체적인 세수의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약 400억이 넘습니다. 이 돈의 10분의 1만 들어와도 어려운 우리 소방도로를 한 10억짜리만 개설한다 해도 4군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돌출간판의 체납액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더 걷어들일 수 있는, 체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돌출간판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허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66.7%됩니다. 무허가는 25.5%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무허가분에 대해서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사실 작년 11월까지의 이 업무 자체가 동에서 부과 징수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로 이관된 것이 작년 말부터 이관됐는데요 동에서 그동안에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 업소들이 경기침체로 휴·폐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불명하거나 수치인이 미겨주하는 경우도 많고 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관설관리과에서 노력을 다해서 총괄 관리를 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입니까? 현재 주차장시설을 매입해서 신설하는 데가 신교동, 창신동, 송인동, 이화동 네 군데인데 여기 있는 매입금액은 지급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신교동 하고 거기있는 토지대금은

○吳錦南委員 언제쯤 잔액을 지불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신교동 66번지는 2000년도 11월 15일날 매입비 43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잔금 지급이 2001년도 1월 30일날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실시설계용역이 2001년도 8월 1일날 실시됐고 공사발주가 9월 24일날 돼서 현재 토목공정 50%의 진척률을 보이고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한달 간 시설물이용 홍보를 위해서 2002년도 2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방침을 받아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현재 계획 중입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신교동을 자주 가기 때문에 이 신교동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억이란 돈이 금년도 1월 15일 경에 매입비를 전부 잔금을 줬으면 지금이 12월입니다. 그럼 11개월 동안에 시설하고 뭐 하고 하는 그 시간동안 43억은 놓고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43억을

예치를 해놨다 하면 그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그러나 11개월 동안 주차장부지를 사놓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성만 되지 않았느냐? 신속하게 이런 것을 처리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했으면 2~3개월 내 아니면 4~5개월 내 처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리도 봐주고 또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를 쓰셔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이 기간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매입해서 돈을 지급한 기간이 11개월 간다는 것은 앞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때, 설계를 할 때 너무 기일이 많이 걸려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서는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 얘기하신 것을 마음에 꼭 담아두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지역주민들이 더 아우성입니다. 이걸 언제 샀다, 언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구민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청장님을 위시해서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 모두가 다 손짓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시행할 적에는 철저하게, 빠르게, 그렇다고 해서 부실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처리해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반성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吳弼根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우리 종로구의 현재 하수문제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금년에는 특별히 눈도 많이 왔고 비도 많이 왔다고 말

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준설문제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준설은 몇회나
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저도 여기 부임해서 오자
마자 수해관계를 당했고 지금까지도 1건을 마무
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마무리가 될텐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참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며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을 왜 이렇게 많이 못 했는지 반성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는 우리 종로구는 신설사업
보다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나 도로포장의
유지관리 측면으로 이걸 전력을 하도록 이렇게 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3년 동안의 준
설현황을 도면화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
다. 그동안 어디를 준설했고 어디는 안 했고 이
렇게 봐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康局長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는 모든 행정이 눈으로 보이는 행정은 그대로 됩
니다. 진실하게 보이지 않는 하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로가 610년이 된 도시예요.
도시 속에서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하수관리가 너무나 엉망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
습니다.

○金福同委員 옛날부터 하수관을 한 공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웅기나 토관으로 돼서 차량이 다
니면 그것이 다 꺼집니다. 꺼졌다고 지적을 해주
면 토목과에서 와서 걸만 바르고 가요. 2~3일 있
으면 그 곳이 구멍이 납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康局長께서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행
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금년에 종로구에서 지금까지 수해
가 많지 않았습니까?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준설문제나 하수도를 제대로 관리를 못 했기 때문

에 우리 종로에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 것을 아서
야 합니다. 국장께서 우리 종로구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시리라 생각
되지만 사후약방문이 소용없어요. 미연에 방지하
는 것이 최선입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
의 피해가 있던 것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것을 천재지변이라고 보십니까?
인재라고 보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열심히 위원님이 지적하
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인재로 하여금 이런 큰 피해가 없
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어서 창경궁로와 대학로간의 20m도로가 지금 어
떻게 된 겁니까? 금년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지난 해 30억 예산 있던 것도 지금 집행이
안된 겁니까? 서울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로구에서는 일할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해 예산 세워준 거 조금 집행하다 말고 그냥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서울시의원들도 있고 그러니
까 시의원들한테 부탁도 해서 공사가 조속히 끝나
게 해야지 질질 끌고 갑니까? 한 20m 해놓고 1
년씩 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공사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도시계획 폐지하고
도로를 낼 필요도 없다고 봐요. 명년 12월까지
준공이 완료죠? 대답해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시에다 예산요
구를 하고 저도 지적에서 좀 근무하던 관계로 아
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협력을 많이 구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올려보내고 했습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종
로구청에서는 일할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
요. 예산을 얘기하지도 않고 예산을 줬는데도 일
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된 것이냐? 오히려 반문하더라도요. 예산을 자
꾸 달라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해 30억
가져다가 8억인가 쓰고 불용처리하고 또 그것 가

지고 집행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음 해에 준공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아무튼 와전된 형태의 얘기인데 우리 나름대로 직원부터 저희들까지 열심히 시에 건의도 하고 문서로 해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홀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금년도에 큰비가 왔을 때 본 위원이 새벽1시에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배가 지나가는 것처럼 도로변에 물난리가 나서 와보니까 맨홀인가 뭐가 이런 것이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1시간에 60mm가 왔을 때의 처리능력이 있는데 1시간에 100mm 이상이 와서 처리가 안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걸 물 빠지는 맨홀이라고 그러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배수로 이런 형태로

○金福同委員 제가 볼 때는 배수가 완전히 막혔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물론 거기다 버리는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을 보면 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 곳을 계속 잘 청소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동감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뚜껑이라고 그러는데 낙엽이나 비닐봉지, 또 흙이 쌓여있다든지 해서 제 역할을 못 하는데 준설문제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종로구에서 토목과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추후에 답변하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종로구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는 게 우리 국장님입니다. 도로나 하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입니다. 하수관계에 있어서도 재정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더 올리세요. 올려서라도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동일한 생각입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참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여건이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강

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340쪽 하수도 보수 기동반 인원편성 및 사업추진실적,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넓은 종로를 인원 12명이 편성돼서 준설이나 맨홀, 빗물받이, 각종 하수처리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1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이 인원으로는 절대 안되겠죠. 이 인원은 우리 구청의 직영인부 비슷한 상태이고 우리가 청부 즉 도급계약으로 2~3개 업체를 내년에 계약을 해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12명으로 된 거는 우리 직원으로 편성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종로구민의 민원이 이런 문제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종로구에 몇 면이나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총 143개가 있구요 이게 거주자주차는 117개소 3,068면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하는 곳이 26개로 579면입니다.

○金福同委員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글자 그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민간에게 위탁해서 그 사람들 돈벌이하게 넘기니까? 왜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에 선을 그으면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동에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가? 일단 동에 자문을 넣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거의 동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6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이 끝나는 대로 다시 자문을 얻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과장님!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선을 그어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넘긴다는 것은 어느 구에도 없어요. 그런 법이 종로구에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거주자면

거주자로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주자우선 주차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선을 그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넘긴단 말입니까? 그럼 구 수입이 더 많이 생깁니까? 잘못됐지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최소한도로 동사무소와 주민들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1년에 거둬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거주자우선주차는 7억 정도 되고 노상주차는 17억 정도 됩니다.

○金福同委員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건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지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앞으로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공간이 없는 종로구에서 지역주민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잘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물겠습니다. 도로에 버스전용차선 차량단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익요원 한 사람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들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승용차가 버스노선에 들어갈 때만 촬영하는데 버스가 1~2차선으로 갈 때는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뭐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당초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든 목적이 승용차를 억제하고 대중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게 목적입니다.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버스는 전용차선으로 가도 되고 공간이 생기면 다른 차선으로 옮겨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고 다만 회사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워서 가능하면 전용차선을 지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종로가

어느 곳입니까? 잘못된 법이 있으면 종로구에서 바꾸세요. 버스차선에 승용차가 왔을 때는 사진 촬영을 하고 버스가 1~2차선 갈 때는 촬영하지 않는 건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로는 정치1번지예요. 종로에서 바꾸면 바뀌집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劉燦鍾委員! 질의하세요.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종로구 의정발전을 위해서 특히 종로구 생활민원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설교통국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차업무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행촌동 210번지에서 평면식 주차대수 10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건 뭐니까? 이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주차장부지 선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구예산으로 특별회계 자금을 해서 설치한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구비로 한 걸로 압니다. 대신고등학교 뒤편에 길이 만나는 윗부분, 평장히 평수가 넓은 곳으로 아는데 면적까지는

○劉燦鍾委員 이거 구비사업이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주차장부지는 의무설치가 되어 있지요? 노인정하고. 그럼 시비사업일텐데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건 주택과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니까 시비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리고 평면식주차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내년도에도 목표를 5개 소로 잡고 있는데 이왕지사 지나간 건 어떤 부분으로 풀렸는지는 모르지만 향후에는 배려가 안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존경하는 李炯述委員님 계시는데

제가 의정보고 때 잠시 가봤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시던데 우리 종로구는 주차장부지 선정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가회동쪽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지면보다 높습니다. 그걸 개·보수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인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그런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차장을 설립하는 최적격지고 우선지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李炯述委員님이 저한테 지적을 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李炯述委員님도 북촌마을 가꾸기에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현장의 내용도 저보다는 더 많은 이해 관계든지 얽히고 설킨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희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청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다 하는데 그 학교관계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고 학생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북촌마을 개발계획에서도 저도 서울시에 몇번 회의를 참석하고 오늘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회의를 이 시간하고 중복돼서 참석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아마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어떤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떤 경우는 중기적으로, 어떤 경우는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계약을 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저번에 제가 교남동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진정을 첨부해서 접수했을 텐데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는 이유가 뭐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劉燦鍾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의 일방통행, 양방통행 문제는 저희 구에서는 할 수가 없고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민원대로 하려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지 교통국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제가 서대문경찰서 교통심의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데 서대문구

청 같은 데는 아주 능동적이에요.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심사해주십시오 해서 한 30건 했습니다. 30건 했는데 우리 종로구청은 아주 그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우리 협조공문만 띄우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민원 접수된 지 한 4개월 되었을 겁니다. 과장님한테 특별히 전화도 드렸고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리고 토목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업무과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시스템에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교남동에 상하수도, 소규모 도로포장 보도블록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지도를 첨부해서 형광판으로 지워서 위치를 선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처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土木課長 鄭璣哲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블록하고 도로포장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면도로까지 쉽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실시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간에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그 지역구의원인 구의원도 모르고 쉽게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재상정을 해서 진행한다던 그 지역구 의원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한 2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그러한 중대한 사업을 그 지역구의원하고 말 한마디 없이 동직원 시켜서 야, 동장 사인 보내서 주민이 그곳이 주차부지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고 보느냐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심의를 보시면 그 지역 구의원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도록 합시다.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劉燦鍾委員님 질의에 교

통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교남동 청사부지 건은 주민설명회 때 구청장 연도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이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줄로 저는 사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무튼 지역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행정이 투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선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번에 그 안전이 나오는 동기를 아십니까? 각 그 지역에 부동산 관계하는 업체한테 형식적으로 주차장부지가 나오면 선정해주시시오. 그래서 어디어디에 주차장으로 적합할 것 같다. 비싼 땅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니까 마지막으로 차를 내리고 머무를 수 있는 집에 가까운 자리가 적합하겠다 해서 검토하시오 했더니 내가 한 얘기는 목살시켜버리고 나오지도 않고 공유재산투자심사위에서 부결된 안전을 다시 상정시키고. 누가 로비했어요? 안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복지위원회가 있어. 그 예산 들여다 뭐 합니까?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데서 의견을 취합해서 이 자리가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적합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劉燦鍾委員님 말씀이 옳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리고 모든 안전에 대해서 서로 가진 의견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러니까 자꾸 대립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국·과장님들 모시고 큰소리를 쳐야 되요? 안 그래요? 우리 지방자치 의회가 왜 생겨났어요? 컨소시엄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독주를 막기 위해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면 안되죠. 누가 욕을 먹습니까? 모 지역구의원은 돈 먹었네 어쨌네, 나는 내용도 모르는데 일은 다른 사람

이 하고 사무관이면 뭐하고 서기관이면 뭐 할거야?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신계발을 하지 않으면 자꾸 다운된다 그 말씀이야. 아시겠어요? 앞으로 시정 잘하세요.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유념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吳弼根 다음은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아름다운 종로 행복이 샘솟는 종로' 이 일에 가장 어려운 부서가 건설국입니다. 주민생활하고 가장 직결된 곳이 바로 건설국장님이 진두 지휘하는 그 부서에서 잘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행복되게 살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일은 참 많은 일을 하고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곳이 바로 건설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 하단에 자동차 과태료 부과부분에 부과액이 5억 2,000만원을 부과했는데 받겠다고 아주 책정한 금액이 3억 8,000이면 1억 4,000은 애초부터 안 받겠다고 목표 설정을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 좀 해주시죠.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업무보고 39쪽 하단에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모양이 조금 우습긴 우습습니다. 목표액은 이렇고 부과액은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는 올해 할 때 통상 통계치에 의해서 목표라는 것은 세운 목표를 너무나 낮게 잡으면 실적은 100%, 200% 고양되어 나올 테죠. 이 목표액은 이제까지 어떤 통계치나 과거의 예사를 비슷비슷하게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접근이 되도록 비슷하게 되도록

○李炯述委員 이번 감사할 때 몇군데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목표달성 120%, 200% 이러한 부분이 나왔는데 목표를 정해놓으면 100%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일단 목표설정 할 때에 낮게 잡아서 잡아놓고 200% 했다는 얘기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우스운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주차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성실하게 내는 시민들은 바보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떻든지 부과가 되면 전체 거의 해소를 할 수 있으면 해소를 해줘야 자진납부를 한 우리 선량시민들이 자기 몫을 과태료 내고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일단 잘 내는 사람은 성실하게 내고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과태료 내봐도 그대로 나중에 결손처리 할 것 같으면 낸 사람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을 해주시죠.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노력하겠습니다. 시세말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는 것이 참으로 번져있는데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해주시고 본 위원이 '91년도 의회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몇차례 본회의장에서 거론한 일이 의회가, '91년 되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서울시내를 다니다보면 바로 도로를 굴착하고 거기에 공사 끝나면 뒤따라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하고 그 부분에 다른 공사를 해서 불편을 나 스스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도로굴착 부분은 주무부서가 건설국 소관이니까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토목공사, 하수공사, 상수공사, 전기공사, 도시가스 공사 협의 각 부처에 서로 기구를 만들어서 연속회의를 전년도에 당신 부처에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전부 수렴을 해서 기이 동년 같은 해에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공사비도 좀 저렴해질 것이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도 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집요하게 좀 그렇게 해주도록 건의를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우리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해도 본 위원이 느낀 것하고 구민들이 느낀 것하고 같아요. 만약에 토목공사 무슨 공사 하나 할 때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동년 같은 해에 그 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하수공사를 한다 하는 부처가 힘이 준다 이러한 저거를 많이 하거든. 내하고 같이 할 것 같으면 시민 불편함은 적은데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이 목청

을 올려 가지고 소리 지르는 목청이 좀 줄고 상수공사 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목청이 줄고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 그런데 같은 해에 한 달 전에 도로에다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그 다음 달에 하수공사 하고 또 지나 가지고 상수공사를 하고 도로에 가보면 아스콘포장 잘 해놨는데 누더기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李炯述委員 국장님! 그런 데 보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많이 봤습니다.

○李炯述委員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李炯述委員 제가 듣기로는 새로 부임하신 종로구 건설국장은 굉장히 유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지나간 국장들이 못한 것을 지금 유능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을 해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이 자리를 빌어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이것은 그 사이 와서 지금 파악을 했더니 1년에 한 번, 필요시는 두 번을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 기관 연석회의를 합니다. 이 기간을 분기별로 하든지 조금 더 회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석회의를 좀 분기별로 한다든지 회수를 늘리겠습니다.

○李炯述委員 회수를 늘리면 뭐 합니까? 지금까지 10년을 얘기해도 어느 한 건 같이 한 건이 없거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연석회의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할 때에 상수공사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도록 묶어 가지고 같은 해에 하도록 그것도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후에 하는 그 장소에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회의를 하면 뭐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회의 내용에는 어느 어느 기관은 우리 기관은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이렇게 분야별로 다 있겠는데 우리는 언제 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제안을 받습니다. 문서로. 그래

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일정을 우리 공사는 이것이 주니까 그 시기에 다 맞춰라. 이러한 기간 조정이든지 공사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정하는 회의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심의위원회라고 붙여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동일한 공사시기에 같이 일을 하도록 하고 복구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이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같은 기간에 합쳐 가지고 하는 구청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는 모든 행정이고 주민불편이고 앞서가는 종로가 되려면 다른 구청이 안 하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 생각이 드니까 종로 임기 중에 그 부분에 꼭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종로주민들이 역시 새로운 국장이 이러한 것을 전에 못하던 것을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 부분 엄격하게 관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불법주정차 하는 스티커를 많이 붙이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붙여놓고 견인해가는 차량이 종로에 몇대나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견인차량이 10대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10대요? 이거는 견인차량이 차량을 벌과금을 받는 돈이 서울시로 들어갑니까? 종로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개인업체에서 받아갑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업체로 들어갑니다.

○李炯述委員 한 대당에 얼마씩 수입이 되는지 한번 통계 내본 게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회의 끝나는 대로 차량대수하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견인해 가지고 돈 받은 것하고 그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본 위원도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 식당에서는 들어가 가지고 유리창을 보니까 들어갈 때에 와서 스티커를 붙여요. 지금 5분예 고제가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없습니다.

○李炯述委員 없어요? 스티커를 붙이는데 수저를 들러다 보니까 견인차량이 와요. 끌고 가요. 붙이기 무섭게 끌고 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가 딱지를 딱 때면서 어느 채널로 견인차량에 바로 연락을 해주고 합작을 해가지고 주민들 골탕먹인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관이 우리 구민들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개인업체 치부하는데 신경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구민들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국장님! 어때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적하신 내용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자료를 주시고 저 뒤에 가회동, 감사원간 도로공사 담당 이계장 있네요. 저양반이 우리 주민들 나도 봤는데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중에 좀 참 무서운 주민들이 있습니다. 벽살을 거머쥐고 공무집행방해인지도 모르고 밀치고 욕하고 그런 과정에 감사원 도로가 아주 쾌적하게 뚫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고생한다는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센 우리 종로에 사는 구민이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힘이 센 사람은 어떤 부분이든지 자기의 꼭 법에 따라가야 할 부분은 안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원 올라가는 신설 새로 뚫은 그 위에 감사원 인접해있는 20m 도로를 서울시 종로구청에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2차 보차도라고 해가지고 4.5m 줄입니다. 20m 폭이 아니고 15m로 줄여 가지고 자기 주차장 하려고 하다가 대한민국 법에는 된대요. 새로 뚫은 도로를 어떻게 길을 갑자기 줄입니까? 큰 대도로 뚫린 것을. 그래서 담당계장이 주민들하고 이것은 법에는 2차 보차도로 그런 뚫린 도로는 법으로는 되어 있다고 해도 새로 뚫린 도로는 안되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

심해서 그 길을 20m로 완전히 아주 보기 좋게 뚫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 옹벽이 21m로 옹벽을 치도록 하던 것을 재보니 10m 조금 넘어요. 토함 때문에 도로 지금 서울시 도로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 갔어요. 뚫린 데. 보상을 받아가고 자기 대지를 높이 옹벽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토함 때문에 서울시 도로 밑에다가 철근을 넣어서 자기들 건물 토함을 유지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서울시 땅에다 옹벽을 쳐 가지고 그리 해놓고 나니까 그쪽에 가로수를 못 심어요. 우리 鄭興鎭 廳長이 가회동 와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열화와 같으니까 나무를 심도록 하겠다 제가 들어보니까 토목과에서는 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옹벽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밑에 흙이 나올 때까지 그 부분을 파줘야 되겠다. 남의 서울시 땅에다 철근을 넣어놨으면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살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심어야만 그 도로가 이빨 빠지지 않고 대도로변에 한쪽은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데 한쪽은 못 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해준 것이 그 옆에 있는 옹벽을 친 그쪽 대지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꽤 힘이 센 재벌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려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옹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그 옹벽 자체가 뒤로 빠졌는지 앞으로 빠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사관리를 하던 계장이 직원한테 잠깐 의논을 해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李炯述委員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옹벽이 16m로 하겠다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공문을 받았습시다. 그 부분의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우리 국장님이 금년 6월 하순에 부임하셨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7월달에 왔습니다.

○李炯述委員 7월초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7월 11일입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폭우 나기 3일 전에 오셨네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이틀 전에 왔습니다.

○李炯述委員 국장님! 존경합니다. 부임한 지 며칠 안되어 가지고 바로 이 장소에서 수해 입은 주민들이 와 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부임하자마자 폭우가 와서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빨래터 얘기하시는 겁니까?

○李炯述委員 예, 그렇죠. 주민들 달래 가지고 그래서 힘든 부분은 제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건설국장 구민들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얼마 안 되어 겨울 되면 눈도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지난 7월 14일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재해를 입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재해에 대한 예산을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든 눈이 수없이 와 가지고 길이 막히고 이럴 때는 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이 건설국장이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지난 7월 14일날 새벽 3시에 제가 현장에 폭우가 쏟아져서 비원 담장 옆으로 갔더니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3시 30분에 재해대책본부에 전화를 했더니 사람이 전혀 없대요. 전화를 받는 직원 하나 얘기가. 5시 넘어서 전화를 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전화만 받지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10시가 넘어서 우리 구청장 보좌관이 우리 동네 살아서 모셔다놓고 직접 전화해도 재해대책본부에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재해대책본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는 거거든요. 원서동 담장옆에 그 위에 빨래터에 내려오는 한길 되는 하수관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되는 큰 관이 한 300m 내려와서 노인정 바로 밑에서는 비원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이 여기는 조그만 관이 묻혀 있어요. 이 자리 여기에는 관이 몇 개나 큰 관이 내려오면 밑에도

받아서 그대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력을 아십니까? 아는 대로 답을 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얘기하신 사실은 옳은 사실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현장에 저도 몇차례 가서 문화재관리국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우연찮게 어저께 옛날 도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시청에 들어가서 옛날 도면을 보니까 지금 그대로 그려져 있더군요. 옛날에는 깨끗한 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대로 내려가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불 때는 통수단면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보더라도 그때 7월 14일날 이상한 원목같은 나무가 걸려 가지고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이 아주 혼을 내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劉燦鍾委員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북촌마을 가꾸기 해서 그쪽 편을 시에서도 전부다 협의수용이라고 보기보다는 협의계약을 해서 사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반경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한테 그동안 우리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이라도 현지 여건을 잘 알 테니까 그때 가서 오히려 기술보다는 현지 사정에 밝은 위원님한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오늘 만약에 또 폭우가 쏟아져서 지난 7월 14일 똑같은 수해를 입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알고도 그대로 묵인했다고 본 위원은 질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천재야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아 가지고 해를 입으면 인재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서 두번 다시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 때에 따라서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다른 위원도 질문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도 바로 劉燦鍾委員 지하주차장 문제 재동초등학교 문제를

짚고 넘어갔는데 안전문제, 공사기간 문제 이러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재동초등학교 토지를 구청에 전에 과거에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해서 제가 했어요. 지질검사를. 마사토라고 해서 파일만 박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어서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신학기 개학 할 때까지 뚜경을 덮어 원상대로 학생들 공부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겨울방학을 시작하면서 신학기 시작될 때까지 운동장 현상상태 모습을 해줄 수 있겠다고 하는 재벌회사의 건설회사의 사장 도장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장께 드렸습니다. 공기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종로구청 집행부의 담당국에서 해야될 일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해도 하지 않아서 그 공정표까지 해서 시장님 다 드렸어요. 시장님하고 대화 나눌 때 서울시 담당국장이 시장님께 답을 하기를 종로구청에서 시범지구를 각 구청에서 하나씩 해올리라고 했는데 종로구청에서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뭘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서울시장이 각 구청에 하나씩 올리라고 했는데 종로구청은 하나도 해올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말로는 하겠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종로구청이라고 하면 종로구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임 종로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이 그게 위법이고 불법일 때는 따라갈 필요가 없지만 종로구민들을 위한 올바른 중요한 일 같으면 다음 청장도 해야 됩니다. 지난 박형섭 종로구청장이 바로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37억 5,000만원을 서울시와 예산을 확정해서 했어요. 그럼 전의 서울시장은 얘기한 게 전부 거짓말이고 그 다음 시장이 왔을 때는 안 따라가도 됩니까? 옳은 일이면 따라가줘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나간 청장이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집행부도 따라가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적하신 대로 위법 부당하지 않다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판 게 불법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만약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과정에 재동초등학교가 아마 도시계획으로 초등학교로 결정됐을 걸로 생각되는데 만약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절차적인

○李炯述委員 局長님! 전 재동초등학교 여기에 구정질문 속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건 공립학교라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본 위원이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면 해야겠다고 했을 때 그 뒤에 그게 신문에 나고 난 뒤에 금호초등학교가 했습니다. 거기 공립입니다. 성남에 있는 대원초등학교도 사립이 아닙니다. 서울시내의 많은 학교가 따라서 했습니다. 여기는 하지 않아요. 말로만 노상 해준다고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면 동료의원들이 웃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 얘기를 왜 다시 거론하느냐? 할 수 있는 걸 집행부가 안 하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거론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올리라고 하면 해올러 보고 같이 노력을 해줬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종로구청 자체는 해올리지 않았단 이겁니다. 청장님이 아무리 하라고 소리질러도 밑에서 안 하면 일이 안됩니다. 鄭興鎮 廳長이 수없이 해준다고 했어도 관계국에서 하지 않거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李炯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초등학교의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짧고 질의할 자료는 많고 그렇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도 짧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玄壽漢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세검8교 현장 공사책임자 여기 있죠? 세검8교 기본설계하고 공사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회의자료하고 1~2차 교량 다시 설계한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그걸 보고 하나하나 따져야겠어요. 먼저 이면도로 거주자 주차 계획선 그건 우리 구청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시를 받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우리가 계획을 하고 검토하고 구역별로 되는 경우는 의논도 하겠습니까만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玄壽漢委員 거주자우선주차계획선을 그을 때 현장을 보고 나와서 계획을 합니까? 그냥 도면만 보고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도로는 5.5m를 기준으로 조금 넓으면 하는데 현장을 안 본다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당연히 봐야겠지요.

○玄壽漢委員 아니 그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으면 주민들이 더 불편한 자리에 선을 그었기에 물었더니 서울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한 거라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를 제시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玄壽漢委員 아니 내가 사는 신영동 116번지 앞에 도면상의 도로폭은 10m가 넘을 겁니다. 이중도로입니다.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으니까 차 1대밖에 못 다녀. 그러면 왕복차선인데 어떻게 차를 피해가라구? 사람은 어디로 다녀? 그러니까 교통전문위원이 나오데? 서울시에서 그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주민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몇 개는 지워 버리고 차를 기리까지 하게 해놨는데 이면도로 굽는 건 현장을 보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야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거 그을 때 세심하게 해야지 서울시에서 지시한다, 구청에서 도면만 가지고 어달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왜 해? 그 다음 주차계획선을 굽는데 거기에 넘버 정해서 월정액 4만원하고 넘버 안매기고 이렇게 그어놓는 게 있어요. 내가 어제도 방위협회 나가서 되게 당했는데

뒷골목에 아무나 댈 수 있게끔 흰선 긋는 거 있죠? 왜 해놓느냐 이거야. 사람들 다니지도 못하게. 그럼 그거는 무료거든. 돈 안받구. 그럼 그걸 선 그어놓은 데는 외부차량도 댈 수 있으니까 단속이 안 된다고.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월정 4만원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한 곳을 번호를 써주고 좀 여유가 있게 되는 지역은 번호가 안 붙게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그어주니까 그런 데는 외부차량이 와서 24시간 차를 대도 말을 못 한다고. 단속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이 58명인데 이게 공익요원까지 합한 거예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런 뜻이 아니고 금년이나 내년에 그 동안 관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200m에 1명씩 주민관리원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홍보를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는 겁니다.

○玄壽漢委員 그럼 이 사람 급여가 나갑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시간당 3,300원씩 8시간 기준으로 나갑니다.

○玄壽漢委員 2002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이 신고를 해도 견인도 안 되고 단속도 안돼. 세검정 특히. 왜냐하면 월정료 4만원을 받으면 그건 개인주차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외부차량이 와서 대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 아무리 신고를 해도 견인차도 안 오고 단속요원도 안 나와.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 동안 저희들이 부암동이나 무악동, 창신동 등 산으로 올라가는 지역은 저희들이 견인대행소가 있는데 거기 차가 10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끌어가고 힘들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기사들이 1대 끌어가는데 수당을 주는데 감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견인업자를 추가로 한다는가 해서 철두철미하게 잘하도록 노력하

고 장기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를 몇 대 구입해서 자체 운영을 한다든지 해보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거주자우선주차계획선에 댈 거는 불법주차라고 할 수가 없어서 딱지도 못 붙인데. 바로 견인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지껏 몇년 동안 견인차 한번 안와. 신고를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불법주차가 계속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낸 놈만 병신이고 억울한 거야. 이걸 해결해주고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루 한번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거 관리해준다고 컨테이너박스는 갖다놨데? 근데 2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일이 뭐냐 이거야? 왜 돈낸 사람만 억울하게 하느냐 이거지. 난 육까지 지독하게 먹고. 구의원 오래할 거 아니야. 이게 얼굴을 알아 가지고 뭐 했냐고 어제도 공박인데 이거 내년에 한번 기대해볼게요. 2002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두 달 참고 두고 볼거라구. 내 임기가 내년 6월 달까지니까 두고 볼거라구. 나 의원 안 하면 이거 계속 씹어떨거라구.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알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다음 우리 종로구 간판 철거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적 있죠?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런데 제대로 정비가 다 됐다고 보세요?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정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정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입간판만 담당을 하고 있고 벽면에 붙인 건 자치행정과 광고물 전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동감사를 나가 가지고 시내 돌아다녀도 이 간판 때문에 어지러워. 이 크기가. 그래서 동장한테 제대로 한거냐고 그랬더니 다 정비된 거래.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돌출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玄壽漢委員 이 업무가 그전에는 간판이고 노상 적치물이고 동에서 단속권이 있었는데 이게 구청으로 이관되니까 동장들 뒷집지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욱먹을 거야. 그러니까 안 한다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것도 그전에 동에서 할 때는 직원이 오토바이 타고 와. 그럼 딱지도 떼고 단속이 됐어. 그런데 구청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좋아진다는 세상이 뭐 아름다운 종로? 슬로건만 좋아. 그 동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엉망이 되는 거야. 동행정이. 그럼 구청으로 이관이 됐으면 구청에서 해줘야 될 것 아냐? 인원은 반으로 다 빼가고. 구청은 늘었을 것 아냐? 늘었으면 는 대로 해줘야 될 것 아냐? 손발이 안맞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판도 그렇고 앞으로 구청으로 넘어오니까 단속이고 뭐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건 아는데 이게 내년도 월드컵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다니면서 보면 준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 局長님! 내년도 한강물맑히기 운동의 일환으로 홍제천이 계속 되는데 내 관할구역인데 시비로 분류하수관 자꾸 보수를 하는데 매년 3~4억, 어떤 때는 몇 십억 들어갔어요. 나 의원 생활 10년 동안 홍제천에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한데 분류하수관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그걸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돈 달라 해서 고치라고 해도 안 고쳐. 이걸 먼저 하수과 있을 때는 하수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수과도 없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돈이 들어가도 근본적인 걸 고쳐야지 오줌, 똥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 썩은 물이 흐를 수 밖에. 명목상으로 분류하수관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내년도에 3억 5,000인가 공사비로 시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류하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애지녁에 고치라는 얘기가. 그걸.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홍제천은 지방하천으로서 서울시장이 이제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시청이나 구청이나 하

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하여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해서 직접 못하면 돈을 내려주면 우리가 할 때까지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시는 홍제천이나 구기천, 평창천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정비하는 게 좋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관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홍제천이 관리가 이번 9월 이후부터 넘어왔습니다.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한강은 건설국하고

○玄壽漢委員 아니 정비사업을 하는데 항상 시비로다 몇 억씩 홍제천으로 떨어져서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 홍제천 전체인데 그 홍제천 안에 보시면 차집관거라고 분류하수관이 매달려 있는데 박스로 되어 있는 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걸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보수도. 돈이 3억 5,000 얼마 내려왔다는 것이 우리한테 내려올런지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내려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디로 내려오든 간에 보수하는데 같이 의논해 가지고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비가 안 오면 나는 하천변에 살아서 그런지 모기, 파리, 냄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에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나 하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재해 때나 장마 때 이런 게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고 올리면 내려보내겠다 이거야. 돈을. 그런데 종로구에서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지금 신영동다리를 다시 또 놔야해. 세검1교도 지금 놓고 있죠? 신영동다리가 더 급해. 그것 때문에 매년 장마만 지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고. 주민들이. 도로파손은 물론이고. 그런데 하수과 있을 때 계속 2년 동안 얘기를 했더니 올만 하니까 하수과가 없어지고 하수과장도 어디로 가고. 지금 토목과장님, 건설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걸 따지고 할 건 못돼요. 우선 업무과약을 제대로 하셨는지 몰라도 동실정을 모르시니까 다른 얘기는 못 하고 홍제천에 2002년에 3억 5,000 정도 떨어지는 걸 알고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차라리 더 큰돈을 달라. 근데 이걸 절끔절끔 주니까 이 개천은 계속 썩고 있다고. 장마 며칠 지나면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를 묻는다고 그러지만 정화조 문을 돈을 용자해준다고 그래도 안 물어요. 수세식으로 바로 하수구로 전부 빠져버리게 만들어 버리고. 그 진입로 있죠? 그거 하천 복개한 거 아냐. 전부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밤낮 썩은 물이죠. 그걸 지적하고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금 홍제천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층 본 설계가 나왔어요. 본설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6m이하 도로니까 승용차 하나가 올라 가다가 마주치면 비킬 데가 없어. 다리까지 도로 내려와야 한다고. 그럼 그 다리가 좁으니까 주민들이 다리를 한 1m만 늘려 달라고 했는데 1m는 늘릴 수가 없어서 50cm 늘려 주겠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했어. 그래서 공사가 5~6개월이 늦어지고 이제 준공이 된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리를 다 놓고 보니까 높이가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또 설계가 들어간거야. 그랬는데 지금 다리를 다 놓고 보니까 먼저 다리보다 우리가 보기엔 더 좁아졌어. 차 기리까이는 어디서 해? 다해놓고 또 잘못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주민 건의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진다고 해놓고 지금 다리 다 놓고 이제 부시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두분 다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더 따질 수는 없는데 이거 애꿎은 구의원만 욕먹잖아.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이따위라고. 그래서 애지녁에 설계변경을 하고 뭘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먼저대로 또 만들어 놔요? 이중철 과장이 자기가 명예퇴임한다고 이거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다리 다놓고 지금 그 지경이니. 다 해놓고 지금 아차 한다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 이거 읽어보셨어요?

○土木課長 鄭璣哲 기존다리가 원래 4.1m였는데 지금 현재 4.3m로 0.2m 늘어났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럼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난간인가 그걸 이런 식으로 했잖아. 차 1대밖에 못 다닌다고.

○土木課長 鄭璣哲 차가 다닐 수 있는 노폭이 4.3m입니다. 2차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玄壽漢委員 그걸 늘려서 그렇게 해준다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해놓으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지금 거기 언덕 큰 도로 아냐. 후진을 하려면 어디로 후진을 해야해? 그러니까 공사 맡은 사람은 아차 그 생각을 또 못 했구나 하는거야. 지금 아스콘을 깔면서. 저도 불찰이지. 내가 다리 다치는 바람에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감독을 못 했지.

○土木課長 鄭璣哲 죄송합니다. 설계단계부터 감안이 되었어야 하는데 설계가 4.3m로 되어있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玄壽漢委員 돈 들여서 한 거를 주민들이 원래대로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난 어제도 이제 구의원도 안 한다고 했어. 시내공사 잘못되는 것까지 나한테 와. 웬만한 시내 사람들이 날 안까 구의회에서 뭘 했느냐 이거예요. 매사에 의논을 좀 하시고 이거 어떻게든냐고 해야될 거 아니야?

○土木課長 鄭璣哲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설계변경까지 해서 해줬어야지 다해놓고 오히려 다시 놓고 그래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玄壽漢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가 지금 국장님이 애써 주셔서 가지고 매년 재해 나는데 하수관 공사를 다시 합니다마는 제가 얘기를 듣고 그것도 그래요. 지금 현재는 필요치 않은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는 나도 구의원 안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해놓고 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저것을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할 재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직 청와대는 옮겨지지 않는 것을 두고 군인들 초소는 계속 있을 테니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좀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하다가 되겠다, 안되겠다 여론도 들어보시고 하시라구요. 감사에 대한 질문은 이걸로 하고 국장님! 시청에 계셨다니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세검1교 공사 하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확장공사 하는데

○玄壽漢委員 도로 다시 놓는 것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玄壽漢委員 그런데 거기 그런 것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영업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보상차원이니까 시청이고 구청이고 동일한 입장인데 아마 우리 보상계장도 있어서 그 계통에는 전문가가 앉아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보상은.

○玄壽漢委員 왜냐하면 아우성 쳐가지고 내가 욕을 엄청나게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내가 밤에 불러가서 먹었는데 북부사업소 담당계장, 과장 나오라고 해서 문의를 해도 거기도 없다 그러는데 혹시나 뭐하는 거냐, 구의원이 이것도 해결 안해주고. 개인적으로 여쭙보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고 하니깐 혹시나하고 여쭙봤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다 되셨습니까?

○玄壽漢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누차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사진행에 위원님들께서는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장 직권으로 10분이상은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시 20분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12시 20분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정회하고 오후에 하죠?

○委員長代理 吳弼根 그러시겠습니까? 10분이 남았는데

○丁炳煥委員 저 2시간은 해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10분 하시고 또 하시죠.

○丁炳煥委員 아예 정회하고 오후에 하시죠.

○委員長代理 吳弼根 10분만 더 하시죠.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우리 동료 위원인 玄壽漢委員님이 질의를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하단에 공공용지 부과징수가 도로점용료로 20억 2,283만 6,000원을 징수했죠?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이것은 유형별로 어떤 내용으로 징수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그게 다 지금 도로점용료입니다.

○丁炳煥委員 도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용을 해서 징수 부과를 했는지요?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우리 구유지나 사유지, 국유지 세가지 공공용지를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고 점유한 경우에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점용료를 징수해서 아마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보행에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징수 목적보다도 보행에 불편없이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문제 때문에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이 노점상 문제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거리의 노점상 천국이며 또한 상가에 점포주인들이 상품을 야적해놓고 있어요. 그것을 좀 종로거리의 단속을 강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건설관리과장이 丁炳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문제는 사실 우리 종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종로통에 대한 지금 노점상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사실 구청 건설관리과가 아니라 구청 전체가 들러붙어도 해결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노점상은 노점상이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점포주인들이 가게에 들여놓을 상품을 야적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종로거리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예.

○**丁炳煥委員** 보고자료에 의하면 염화칼슘 확보량이 29,628대분에서 사용량이 28,168대를 사용하고 잔액분이 1,100분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폭설이 몇십년만에 처음 와가지고 각 동에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잔량을 두고도 배부를 안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잠깐 의논해보겠습니다. 맨처음에는 부족했는데 주기적으로 더 받아온 것들 중에서 마지막 쓰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자료 확인보다도 다가오는 제설기에는 제설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다량을 확보해서 각 동에 신속하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동사무소에 3명이 배치됐는데 어느 동에 단속원이 배치됐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사직동하고 효자동하고

○**丁炳煥委員** 그 지역은 왜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해화동인데 단속권한이 구청으로 이양되면서 동사무소 동장이나 구의원님들이 우리 단속요원으로 단속하겠다. 배치해달라. 지난번 동장회의 때도 회의자료를 말씀을 드

렸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다른 동에도 단속요원을 배치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면도로에 경사도로에 양편으로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전부 배치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인원이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인원이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 배치해달라고 해도 충분한 인원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방금 玄壽漢委員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이거니와 이웃간의 분쟁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제로 4만원을 주고 주차라인을 배정받아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 구청에다 신고를 해도 몇시간이 걸려도 견인을 안해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와룡상사에까지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룡상사에서 와서는 뭐라고 하니, 차가 트라이제라고 출고된 지가 2년쯤 된 것 같아요. 고급차라고 해서 견인을 못해간답니다. 그러니 와룡상사 민간업자가 어떤 영리만 목적으로 하고 주차단속을 안해주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동안에 조금 전에도 玄委員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몇군데가 무악동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급차에 대해서는 끌어가려면 일단 열쇠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기술 가지고는 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합에서 아마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견인차는 사이드를 풀어야 견인해갑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렇습니다. 풀어야 끝

어갈 수가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렇다면 이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원성이 많은데 고급차라고 해서 견인을 못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4만원씩을 안 받아야죠.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무악동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견인차가 올라가서 그것을 끌어와야 되는데 올라갈 때 양쪽에서 올라가기 힘들고 유턴해서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수없이 위원님도 직접 전화를 하셨다니까 사실 여러 번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견인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시다마는 정수물품이 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다른 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보관소가 아니고 바로바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장소가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히 연구를 해서 아무튼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많습시다마는 동료 위원이 배가 고프니까요. 그래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립문초등학교 앞에 행촌동길이 있죠? 거기가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굴곡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관리는 교남동에서 합시다마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도로에 아스콘이라도 깔아달라고 누차 말씀을 했는데 다른 데 도로포장은 많이 했는데 거기는 안합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鄭璣哲** 그것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내용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현지를 답사를 해서 어떤 예산이 있다면 금년 연말이라도 도로포장을 해주시기 바라고, 되겠죠?

○**土木課長 鄭璣哲** 현지 파악해서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또 한가지는 사유지는 도로가 되었을 망정 도로포장은 안되는 줄 아는데 그렇죠?

○**土木課長 鄭璣哲**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만약에 사유지가 완전히 도로가 파손돼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법으로서 즉 말하자면 도로 다시 보수할 관련법규는 있습니까? 포장은 못하는데 도로가 파손되어버렸다. 다닐 수 없다 했을 경우에.

○**土木課長 鄭璣哲** 지금 우리가 사유지 문제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수 보상근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통행이 불가능했을 때는 사유지라 손을 못낼 것 아닙니까?

○**土木課長 鄭璣哲** 그래서 저희 토목과에서는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물론 우리 지역만 아니라 종로 각 지역에 그런 데가 많을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많습시다마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吳弼根 委員長代理, 安載弘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安載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개인적인 일로 회의참석이 늦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시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6分 會議中止)

(13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도 이렇게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60쪽을 보시면 동별 이면도로 방지턱 설치해서 2000년부터 2001년 10월 현재 해서 각 동에 분포도를 보면 방지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네요? 국장님! 2000년도와 2001년도 방지턱 동별로 설치한 내용이 남아 있네요? 분포도를 보면 방지턱은 0.6m'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그렇게 되어 있죠?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그것은 도로형상이나 전체를 봐가지고 표준적인 것도 있겠지만

○金福同委員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방지턱도 좋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방지를 글자 그대로 방지턱이죠.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바닥에 그려놓는 방지턱이 있고 시멘트로 만들어놓은 방지턱이 있죠? 시멘트로 방지턱을 만들 때는 아스콘까지 해서 얼마나 먹힙니까? 한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교통행정과장이 金福同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 신설할 경우에는 한 개당 70만원 정도

○金福同委員 그렇게 많이 먹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지턱이 유형별로 다릅니다마는 높이의 제한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는 너무나 높이 해가지고 자동차가 달리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파손될 우려가 아주 많고 오히려 방지턱이 아니라 사고위험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요?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金福同委員님 말씀대로 사실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신설할 때는 도로여건이라든가 교통흐름을

감안해서 철저히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방지턱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기 위한 방지턱입니다. 그곳의 방지턱이 있는 주위에서 사고라도 났을 때 사고난 자동차에게는 엄청난 큰 벌이 되어 있죠?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예,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우리 아스콘 위예다 그냥 표시만 한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위험천만입니다. 내리막길에 방지턱을 만들어놓으니까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잡히지를 않아요. 오히려 페인트를 칠해놓기 때문에 아주 위험성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아무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러한 것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지턱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정말 원활하게 안전도를 생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쓰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유형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시다마는 약 44건이 2000년도에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 2001년도 10월 현재까지 해서 23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에 비해서 2001년이 약 50%밖에 안됐다는 얘기죠?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물량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이 원하고 동에서 오고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은 데는 전부 했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각 동에서 위험부담을 느끼고 해달라고 하면 어김없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아끼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설치할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예.

○金福同委員 이어서 공영주차장 연도별 설치 매입, 공영주차장 명칭, 위치, 운영자, 운영자 주소 해서 367쪽에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공영주차장 설치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죠?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거주자, 오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그은 상태를 개인한테 불하를 해준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지금 367쪽에 있는 것은 위탁시킨 사항입니다.

○**金福同委員** 유형별로 보면 도로 라인을 그어 가지고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에 보면 상당히 엄청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유형별로 보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종로구민들도 이러한 것을 하려고 상당히 그럴 텐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면 용산구에 사는 사람,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종로구민에게 하게 되면 지역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보다 더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불하를 해준 사람을 보면 이 주위는 어김없이 청소문제가 엉망입니다. 과장님! 아시는지요? 철저하게 불하는 해준 사람들에게 주차하는 라인 속의 청소문제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유형별로 보면 이 사람들이 재떨이 사용하던 것을 재떨이를 그냥 털어놓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공영주차장에서 관리하는 데가 더러움이 많아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 감시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죠?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예,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런 것을 깨끗한 종로, 아름다운 종로, 행복이 샘솟는 종로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바로 깨끗하고 행복이 샘솟는 종로가 되지요. 청계천 노상주차장 설치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가 371쪽입니다. 큰 도로는 20m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 땅 자체가 청계천의 상가로 인해서 엄청나게 붐비는 지

역입니다. 붐비는 지역인데 종로구에서 라인을 그려 가지고 라인 속에 또 관리사무소를 넣고 해서 진입하는 차량소통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金福同委員**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서울시에 한번 건의해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러한 문제는 도로에다가 큰 도로를 만들어놓고 교통소통은 되지 않는 곳에 만들어 놓고 계속 교통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다시 질의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73쪽입니다. 저희 동네 소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신동 지역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민원명 충신동 공영주차장 건립요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곳에 주차장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집단민원을 낸 적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예,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오류백명이 집단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필지는 다른 사람이 개인이 사서 그것을 주택을 짓겠다는 이러한 사람도 있고 그러한테 이러한 필지가 나왔을 때는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좋은 집이 되고 그랬는데 조속히 하지 않으면 싸고 좋은 땅이 개인한테 불하가 된다는가 팔린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조속한 시일 내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종로구 발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사직동 280번지 도시가스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구청장 이하 구 직원들한테 칭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62번지 바로 옆인 19번지 일대가 도로굴착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같이 시행해야 할 것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굴착이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6m이하라든지 소도로에는 법을 좀 완화를 해서 가능한한 구민의 민원을 들어주는 방향에서 굴착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10m, 15m, 20m로 했을 때는 꼭 법령을 따라야 하겠지만 소도로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꼭 참작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62번지 그 19번지 일대를 2002년 상반기에 도로굴착허가를 해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도록 해야 될텐데 과연 이것이 시행이 될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청장님한테도 어느 정도 인지를 받았는데 금년에 가스가 연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꼭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소도로에는 굴착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이 부분은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이 답변은 토목과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土木課長 鄭瓊哲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 265~260-1호 간의 도로굴착승인 대상 지역은 2000년 5~10월중에 덧씌우기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제24조4항, 6항에 의해 가

지고 신축, 또는 개축한 도로는 위원님께서 다시 피 3년 이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규상 2003년 5~10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8m도로는 그 법령을 따라야 되겠지만 뒷골목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법령을 따진다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떠나서 지금 현재 민생차원에서 뒷골목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아량을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土木課長 鄭瓊哲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의 아량으로서는 곤란한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 굴착시 복구비가 간접복구비가 있고 직접복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떻게 간접복구비에서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 굴착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노면을 포장하도록 그렇게 지시합니까?

○土木課長 鄭瓊哲 굴착 승인을 할 때 본인들이 원인자 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규상 원인자복구를 한다면 원인자복구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 직접 본인들이 복구하는 것이 시행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걸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또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중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직접 복구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통의동 도로확장계획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진전이 늦어지는 이유가 됩니까?

○土木課長 鄭瓊哲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런데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

요. 벌써 1년 이상이 됐어요. 지금 보상이 한 집도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土木課長 鄭璣哲** 동의동 70~35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보상협의 통지 1차가 나갔습니다. 현재 대상필지가 총 13필지인데 그중 현재 3필지가 협의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빨리 시행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대문 쪽으로 가면 육교가 2개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에는 월드컵이 또 5월 말경에 시작합니다. 그 육교를 가서 보시면 토목과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육교를 가서 보면 웬스가 스텐으로 해서 전부 교체되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육교 2개는 무쇠덩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페인트만 자꾸 칠하고 또 칠하고 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방문해보셨는지, 아니면 방문을 해보셨다면 그 육교를 그대로 웬스를 두어야겠는지, 교체를 해야겠는지, 광화문사거리에 그 육교가 있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광화문에서 서대문간의 육교 거기가 좀 웬스 모양이 사나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나 육교들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도 굉장히 정밀진단이나 점검 이런 것들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의 점검을 통해서 보수,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예산관계나 이런 게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교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吳錦南委員** 현재 거기 육교를 보면 새문안길에서 신한은행 쪽이고 금호사옥에서 흥국생명 쪽으로 두개가 나란히 있거든요. 아주 좁습니다. 과

연 이게 두개가 다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광화문사거리 쪽으로 가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연계해서 그 육교가 사실 없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보셔서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吳錦南委員** 효자동 즉, 경복궁역에서 효자동 쪽으로 문화역사탐방로를 지금 시예산으로 조성하고 있지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총 사업비가 28억 7,200만원입니다.

○**吳錦南委員**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현재 거기를 가서 보면 경복궁 담쪽으로는 보도를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로 주물등을 세웠어요. 물론 주물등은 그 건너편 주택가쪽으로도 전부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보도블록을 전혀 교체를 안 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80%까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택가쪽으로는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주택가쪽의 보도블록을 교체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土木課長 鄭璣哲** 그 일대는 주택가쪽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블록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13억이 소요되는데 시문화과와 지금 협의 중인데 시문화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28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土木課長 鄭璣哲** 28억은 그것이 빠진 구간에 대한 공사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구간은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吳錦南委員** 같은 경복궁 담쪽인데 보도가 한쪽은 정리가 되고 한쪽은 안됐다는 것은 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8억은 동측하고 청와대 앞, 경복궁을 돌아서 동측까지 그걸 돌아서 하는 게 2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주택가의 보도 부분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옳다고 느낄 겁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 문화과로 구두상으로나 문서상으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왕 해야될 거라면 가로등주의 파이프로 심고 해야 되는데 하는 김에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내년 예산에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언질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지금 그러한 상황을 촉구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적극적으로 좀 서둘러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규신고를 받으시면 그 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이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여기 게시는 교통지도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시는 때 저와 매주 동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하면 보도블록 교체나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는 문제 등이 가장 큰 대상입니다. 그래서 삼성병원 앞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경복궁역 뒷골목 같은 데는 보안등을 신청해도 3~4개월이 지나도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은 예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직동에서 보수가 들어오는 것은 저나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직접 다니면서 체크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다음 전에 도림동에 국장님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LG슈퍼 있는 데 15~16번지 사이 빗물받이 하수도공사를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 공사하는 분이 큰 기계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가지고 간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사 시작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에는 세운상가 테크보수공사로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10억 1,000만원입니다.

○吳錦南委員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나왔어요? 서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구예산 아닌가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구예산 맞습니다.

○吳錦南委員 구예산이 1억 1,000 아닌가요?

○土木課長 鄭璣哲 2000년 예산 4억 1,000하고 2001년 예산하고 해서 11억 1,000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아니 답변하는 내용과 국장하고 과장이 다르잖아요? 국장님은 10억 1,000이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11억 1,000이라고 그러고.

○土木課長 鄭璣哲 죄송합니다. 10억 1,000이 맞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는데 참조가 되도록 자료를 드리세요.

○吳錦南委員 그러면 여기 보수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끊어내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시 까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환기통이 있습니다. 명칭을 환기통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이런 구멍이 있는 게 자꾸만 걸리고 하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사람의 통행이나 여러 환경면에서 좋은 이러한 것이 주공 사업입니다.

○吳錦南委員 그 공사를 본 위원이 한 세번은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재 한남대교를 보수하는데 보면 중간에 들어있는 그 철을 어느 정도 걷어내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철은 나오지도 않고 바로 위에 콘크리트 발라놓은 거 그것만 걷어내고 또 걷어내기 전에는 거기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CD를 파는 그런 불량업소들이 거의 철거를 했었는데 그걸 끊어내고 다시 그 자리에 콘크리트를 입혔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또 새로운 업자들이 양쪽에 가건물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상가에 있는 협회 회장이 저한테 항의를 해요. 그 양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종로경찰서 교통심의위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만납니다. 만

났는데 그걸 저한테 항의를 해서 내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두어 차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 지금 제가 매일 세운상가 다리 밑으로 해서 제 일과 때문에 다니는데 페인트칠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한강은 전체 상판을 들어내는 거고 이쪽은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윗부분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엔지니어링 계통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런 방법으로 시행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석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한 게 금년 7월 30일 기준하고 7월 30일 이후의 기준하고 해서 굉장히 면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동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우선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그동안 주차문제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갖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5.5m이상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자고 하고 또 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차량을 가진 사람은 주차장을 사용하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당연히 단속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주차장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단속하면 주민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뒷골목하고

이런 데는 주민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게 최초 11월 말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11월 20일 이후부터 11월 중순에 다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접수하라고 그랬는데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220면을 접수했어요. 그 다음에는 650면으로 줄었어요. 다른 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평창동을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220면을 신청해서 사용할 때에는 자신의 주차장이란 개념을 가졌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해도 단속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접수를 받으니까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져 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그러니까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주민들만 이상한 꼴이 되어 버린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평창동에 라인을 그은 거는 굉장히 많은 면인데 처음에 접수할 때도 반도 접수를 안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비를 경감하거나, 즉 우리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4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과장님 생각에는 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사실 차량을 소지함으로써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를 잘못하면 4만원을 물어야지요? 그래 가지고 주차 위반을 잘못하면 견인료 4만원 내야죠.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가졌다가 주차 잘못하면 정말 운이 나쁘면 8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거는 인정하되 주민들에게 고정적인 비용을 강요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우리가 줄일 생각은 없느냐 이거죠.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

간은 4만원, 야간은 3만원 그 비용은 저희가 운영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서울시조례 강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곤란하고 물론 서울시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는 게 시조례로 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리고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됩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건 서울시조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종로구조례잖아요? 종로구조례면 종로구에서 고칠 수 있잖아요? 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면 종로구 조례인데 의회가 조례를 고치고 만들고 하는 곳 아니에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요

○委員長 安載弘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인데 남의 눈치 볼 거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미있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새거 하나 사면 취득세 내죠? 등록세 내죠? 보험료 내죠? 자동차세 내야죠? 그 다음 주차장 주차요금 내야죠? 주차 잘못하면 주차스티커 발급받아야 되죠? 거기에다 견인료 내야죠? 휘발유 사면 휘발유에 특별소비세 내죠? 도대체 자동차하고 관련된 게 이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용의 차량인데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차요금 인하를 못할 게 아니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교통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물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변에 그걸 고려해서가 아니라 사설주차장이 많습니다. 그 사설주차장이 우리 명륜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뒷골목 거기도 굶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달리 해본다면 오히려 반발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좀 세월이 지난 후에 지역별로 형평성에 따라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민간주차장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자동차하고 관련된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에 되어 있고 요금표 밑에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월 적립금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9만원 받잖아요? 1만원씩만 깎아주자 이겁니다. 안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럼 개정해요.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개정하면 되지 안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낮춰주면 주민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티코를 타고 다닙니다. '91년형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일급지나 이급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경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 최고 좋은 에쿠스나 티코나 주차요금이 동일합니다. 이거 모순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순을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순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1~4급지에서도 티코는 주차요금을 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티코 안 받아요. 그러면 차량이 대형화되고 중형화 이상 된다면 정말 서울시에 주차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잘못된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구의 눈치, 타구의 형평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치구가 왜 필요합니까? 종로구는 종로구의 특색을 갖고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의

회나 집행부가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요금도 들어가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가 거의 300억이예요. 주차장을 만든다고 만들지만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180억에서 200억이 넘어가요.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委員長 安載弘 물론 과태료를 부과해서 못받은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요금이라도 깎아 주자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의논하고 조례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전문위원께서 조례만 개정하시면 된단니까 그렇게 하도록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입니다. 371페이지 감사자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종로경찰서장이 종로경찰서 관내에 방범공청회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대다수 얘기가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나와요. 새삼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나 동에서 경찰서에다 할 수 있는 민원이 왜 우리 동에는 구청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느낄 적에 선수를 뺏겼다고 할까요?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교통이 많이 들어옵니다. 건널목 교통문제 물론 신호등도 들어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방지턱도 한 4개는 경찰서로 인해서 신설하고 건널목은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니까 5개는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각 동이나 동장님들한테다 말씀드려서 이러한 민원은 사전에 우리 종로구내에서 완결되도록 왜 같은 일을 경찰서에 줘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분투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감사자료 377쪽 하단에 보면 견인차는 대행실적이 있죠? 견인차량이 몇대라고 했어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10대인데 한 대가 폐차하고 9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10대 중에 한 대가 구청 소유입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예,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현재 9대 가지고 견인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예,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견인차는 어느 지정을 할 때에 어떤 입찰을 봐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선정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견인차는 입찰한 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견인차를 가지고 사업자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수의계약으로?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예, 그렇습니다. 어느 업소라도 그러니까 일정 업소가 아니라 다른 와룡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계약을 신청하면

○李炯述委員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서울시 각 구청마다 견인업소조합이 있습니다. 자기들 임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약할 때 종로는 와룡, 중구는 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차량등록증 보면 종로구청에 출입하는 업자가 차가 9대 있는데 주소가 명륜동도 되어 있고 같은 사람이 혜화동도 되어 있고 주소지가 세군데나 나눠진 이유가 뭐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종로구 중학동 107번지로 되어 있는데요.

○李炯述委員 아니, 개인소유자의 주소지가 명륜동, 혜화동 다른 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주소

지는 이름이 똑같으면 한 군데로 되어 있을 거 아
닙니까? 그렇죠?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 주소지는 등록할 당
시에 주소지하고 이사를 다니니까 자꾸

○李炯述委員 이사를 다니면서 바뀐 겁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이사를 다니면서 자꾸 옮
겨다니니까

○李炯述委員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예.

○李炯述委員 지금 소형차는 견인료가 얼마입
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4만원입니다.

○李炯述委員 승합차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5만원입니다.

○李炯述委員 이 사람들이 견인해가고 다른 수수
료를 구청이나 시에 내는 것은 없습니까? 없
어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없습니다. 세금만 내고.

○李炯述委員 그러면 감사자료 377쪽에 금년 10
월까지 1,761건에 7,044만원이죠?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예.

○李炯述委員 승합차 기준을 하더라도 나눠보면
5만원짜리 빼고 4만원짜리 기준을 하더라도 대
당 3만 6,000원밖에 안됩니다. 5만원짜리 없
는 경우로 하더라도 또 2000년도에 12월까지
2,533건에 9억 2,100만원인데 승합차 기준
을 하더라도 대당 3만 6,000원밖에 안되
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3만 6,000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11억이 넘거든.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저희들이 일단 끌어가
면 견인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관소에서
보관료를 그 사람들이 차를 찾아가면 그
찾아간 것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받아갑니다.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李炯述委員 그래서 틀린 겁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예.

○李炯述委員 지금 견인차량을 몇년도부터
했죠?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견인한 연도 말
입니까?

○李炯述委員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최
초등록이 '96년도 같은데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98년 7월 1
일부터

○李炯述委員 최초등록이 '96년도인
데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 이전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하다가 지방자치
가 생기면서 구청으로 이관된
겁니다.

○李炯述委員 4만원, 5만원 견인료를
받는 게 어느 근거로 받고 있
습니까? 서울시 조례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
습니까? 4만원, 5만원 받는
것이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서울시주
차정차위반견인 등에 대한 조
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업자를 서울시민들이
보기로는 특혜라는 얘기가 많
이 나옵니다. 특혜라고 이거
를 후에 한번도 다시 다른 사
람들이 해보겠다고 여기 와
서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종로구청에 없었어?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예.

○李炯述委員 이와 같은 똑같은
것을 해서 차량을 구비해서
신청하면 종로구청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계약을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어떤 저거로 해서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쟁입찰
을 붙인단든지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경쟁입찰
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2개, 3
개 되어야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무악동이라든가 견인차
가 안되고 있으니까 업체가
많을수록 저희들이 일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들어
오는 것을 막을 일도 없고

○李炯述委員 그런 차량을 조
건에 맞춰 가지고 오면 어느
업체든 등록을 시켜준다?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제 개
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개인 생각이 아
니고 집행부 측에서는 공식적
인 답을 줘야지 담당과장 생
각을 가지고는 얘기가 안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차량을 구비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도 이런 걸 견인해보겠다고 왔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李炯述委員**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답을 해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우리 교통지도과장의 의지가 분명하네요. 의지가 분명한데 개인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李炯述委員** 개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집행부의 답을 구하고자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다고 하면 저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제시된 내용을 종합 검토를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기는 저도 검토를 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李炯述委員** 답이 아주 확고한 답이 안 나오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차량이 있어서 그대로 접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겠다. 본 위원으로서 답이 시원치 않다고 봅니다.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98년도 각 구로 이관이 돼서 우리는 와룡, 중구는 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해왔는데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업체가 한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신청이 들어오는 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종로구청 입장에서는 종로구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행복이 샘솟는 종로구민들이라는 것은 삶이 편안하고 거기에 무슨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하거든요. 지금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딱지를 붙이면 그 순간에 뒤따라 와가지고 어디서 오는지 불과 2, 3분도 안돼 가지고 견인을 해간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봤거든. 차량이 어느 한곳에 저것을 하려면 차가 주차가 불편하지 않은 한쪽에다 대놓고 해야지 어느 대도로변에 턱 대놓고 그것 불법주차입니다.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차량이 자기는 대도로변에다 불법주차를 하면서 견인해가는 건 안되죠?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李炯述委員** 아니, 불법주차 단속하는 차량이 자기는 대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다른 차를 끌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관이 아니고 개인이라면서요? 이 업체가 개인이라면서요? 견인차가 개인이라면서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李炯述委員** 개인이 어떻게 자기는 불법주정차 해놓고 남의 차를 불법주차 한다고 끌고 잡니까? 국장님 생각에 맞다고 봅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개인 차량이면 불법주차가 되는 겁니다.

○**李炯述委員** 아니, 견인차량 애깁니다. 관이 아니라 개인이라면서요? 개인 것인데 어떻게 자기는 대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다른 차가 불법주정차 한다고 끌고 잡니까? 장기주차를 하고 있거든. 대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종로주민이 보기에는 불쌍사운 풀이거든. 이 부분을 엄히 감시감독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종로구민들이 불편하도록 그런 행정을 해나가서는 안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장기 주정차 하면서 다른 차량을 견인해가는 일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을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단속을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단속하실 거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李炯述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부분의 **李炯述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등록했는데 소유자가 주소가 다르다고 하니까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

을 하셨다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소를 변경해서.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예.

○委員長 安載弘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냐? 김상헌이라는 사람은 주사무소가 중학동으로 되어 있어요. 김상헌씨의 주소가 다를 수가 없어요. 왜 다를 수가 없느냐, 자동차등록증을 어떻게 해서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번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게 차량등록번호 서울 99바 3029는 김상헌 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주소는 종로구 신문로 207번지 2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등록기일은 2001년 8월 27일이에요. 99바 3028은 똑같습니다. '96년 11월 15일에 등록했는데 종로구 혜화동 27번지 7호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다 다르잖아요. 3015 혜화동 27-7번지 '96년 8월 2일, 98바 3320 종로구 명륜1가 27번지 55호 3통5반 2001년 7월 20일 과장은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왜 이래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委員長 安載弘 아까는 그러셨잖아요? 주소지가 변경된 것은 당연한데 재입찰한 것입니다. 김상헌이가 사업을 하지만 이 사람 혼자 입찰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입을 시킨 거거든요. 그 대신 김상헌이 이름으로 등록을 했겠죠.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소유자란에 다 김상헌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가 차량번호마다 틀리냐 이거죠. 어떻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자동차등록은 최초의 사는 데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차를 샀을 때 주민등록 그 당시에 주소를 등록하고 옮기면 다른 데서 등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이 사람은 도깨비 같은 사람이에요. 2001년 2월 7일에는 명륜1가에 살았다가 9월에는 신문로 27번지에 살았다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98년 3월 7

일에는 혜화동 살았다가. 가능해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제가 알기로는 사직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세종로동 살았다가 혜화동으로 이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이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집이 없기 때문에

○委員長 安載弘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이 모든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2.5톤 미만은 4만원을 받죠? 견인료를.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예.

○委員長 安載弘 4만원을 받는 근거는 뭐예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당초에는 3만원이었는데 '99년 5월 10일 서울시 주정차위반견인조례를 개정해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李炯述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77쪽을 보면 147 견인실적을 보면 연 25,000건을 견인해서 9억 2,138만 8,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따져보니까 한 대가 853만원을 벌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가격 좀 내리자구요. 가격이 4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서울시 조례잖아요? 일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에서 종전에는 3만원이었는데 4만원으로 올렸으니까 경제가 어렵고 모든 차량들이 제세공과금으로 시달리니까 이거 내리자고 건의합시다.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건의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시조례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야죠. 의회에서도 개정토록 하는 건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委員 있음)

토목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건

설교통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종로구 공사와 관련지어서 종로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 내용 중에서 불법 하도급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얘기 좀 해보시죠.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아시는 대로.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토목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어요? 없습니까?

○土木課長 鄭璣哲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보통 공사 예가의 85%에서 낙찰이 되는데 공사의 금액이 떨어집니다. 공사의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맞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는 우리 건설교통국 康局長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도급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부분적으로 차단하거나 또는 봉쇄를 해서 임시도로, 임시가교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 그 공사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당분간 불편을 참아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사 설계할 때 공사내역서상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래서 감독관 되시는 직원들은 그 공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세요. 이것 남의 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

고 이것은 내가 하는 공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법하도급이나 또는 안전관리나 공사의 품질 향상에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정말 공사의 불법하도급 문제나 또는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나 질 향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면 행정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토목과에는 결원이 약 10여 명이 모자라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건설교통국 전체에 굉장히 기술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래거(lagger)해서는 안되죠. 기왕에 하시는 일 그리고 종로구에 몸담고 계시는 동안 적어도 여러분의 이름이 구조물에 남죠? 공사감독관의 이름이 남죠?

○土木課長 鄭璣哲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동판에 남죠? 그 동판에 남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동판에 남은 이름이 하자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으니 불법하도급 문제, 공사안전관리 문제, 질 향상 문제, 부실공사 방지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대책을 세워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검교 확장공사와 관련지어서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만 여쭙보겠습니다. 민원인은 김영준씨라는 사람인데 세검정 확장공사와 관련지어서 그 인근에 토지가 있다고 하는데 옹벽 구조물이 설치된 이유나 암반, 절개된 암반의 도개위험이 있을 경우에 자기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그렇게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김영준씨를 만나보셔서 가지고 민원의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절개지가 생김으로써 종전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용이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

왕에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공사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편을 초래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살펴보고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弼根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弼根委員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셔서 가지고 중복된, 반복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생략하고 몇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수유리 4·19묘지 있는 데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더라구요. 거기 표지판 밑에 어느 보험회사의 광고가 부착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했더니 전부 부착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드는데 우리 구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경영마인드에 도입해서 주차표지판을 만드는데 거주자우선표지판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2, 3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영마인드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착안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吳弼根委員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구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동네에 주차단속원들이 딱지를 많이 떼고 가시는데 정말 육도 얻어먹고 고생들 많은 것 같아요. 그 부서에서 근무를 안하려고 하는 공익근무자도 있더라구요. 얼마나 많이 떼고 다니는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떼고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뽕 데를 안 떼고 있습니다. 뽕 데를 가서 떼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떼니까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원성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가보세요. 이면 도로에 딱 차를 받쳐놓고 좌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지를 떼지 않고 있어요. 가장 딱지를 떼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딱지를 못 뽕니다. 왜 못 떼느냐 했더니 좌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운전하신 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딱지를 못 뽕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구. 이것 말이나 되는 애갑니까? 골목길에 잘 받쳐있는 차는 딱지 4만 원짜리 떼고 정말 교통에 방해가 되고 서민생활의 가장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차들은 딱지를 떼지 않고 이러한 불공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전자가 있어서 딱지를 못 뽕다고 하면 각 동에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합동단속을 하면 뽕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협조공문을 경찰에 보내세요. 교통경찰에서 그래서 이러한 악질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뽕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吳弼根委員 여러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토목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말 종로관내에 토목과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스콘도 깔고 해서 골목길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종로, 살기 좋은 종로'가 되는 것 같아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뽕 할 때는 자부심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혜화동 관내에 27번지와 33번지 일대의 아스콘 포장하면서 전부 그 일대를 아스콘을 깔기 위해서 빗물받이도 높이고 해서 공사를 딱 해놓고 콜타르라고 합니까? 밑에 먼저 까는 것 그것을 전부 뿌려놓고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토목과에서 50~60년 된, 65년 된 무주 땅이 있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무주 땅이 있는 필지는 이번에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용어가 안 나옵니다마는 쥐 뜯어먹는 식으로 포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하느냐? 그래서 못 합니다 했더니 동네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 땅주인을 찾아서 보상을 받게 해가지고 포장을 하게 만들어야겠다. 진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 이거 큰일났구나. 지금 거기를 포장을 해놨더라면 50~60년 된 도로인데 그냥 포장을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그냥 슬며시 지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주민들이 성질이 난 거예요. 여기만 빼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 가지고 보상을 받게해서 포장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렵니까? 지금 그냥 깔아주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오전에 丁炳煥委員님도 사유지 내 도로포장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吳弼根委員 현실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거기만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타났습니다. 일단 포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吳弼根委員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지금 포장을 해버리면 30년, 65년 된 도로이기 때문에 해버렸으면 괜찮은데 거기만 빼놓고 하니까 주민들이 땅주인을 찾아 가지고 해야겠다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사유지에 포장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보상을 해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吳弼根委員 局長님! 지금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장을 해버렸으면 될걸 지금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땅주인 찾아 가지고 보상하고 아스콘포장을 한다 이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이해는 합니다. 1년 후나 2년 후에 그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만약 구청에서

○吳弼根委員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30~50년 동안 도로로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것이 공평무사하게 계

속 간다는 전제만 해주신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吳弼根委員 그러면 거기는 포장하지 않고 놔둘 겁니까? 주민들이 주인을 찾아 가지고 보상을 받고 해야 포장할 겁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보상문제가 선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吳弼根委員 이렇게 갑갑하게 하시려면 그러면 우선은 그걸 안 하려면 빗물받이를 낮춰주세요. 지금 옷지 못할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중국집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 손으로 음식물을 들고 가다가 그걸 모르고 걸려서 탁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못 하시겠다면 빨리 빗물받이를 낮춰 가지고 원상복구해주시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에 쫓아온다고 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저녁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잘 좀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아침에도 丁炳煥委員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 때 곤욕을 치렀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인 자세는 그렇게 갖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집행부를 압박해서

○吳弼根委員 법에 얽매어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서 고집을 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양해를

○吳弼根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弼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세요.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그걸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한다는 것이 언제부터 제정됐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도로관리를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 도로가 공공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느냐 아니면 사설도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명이 되겠는데 공공도로라고 그러면 분명히 사유지라고 그런다면 보상이 됩니다. 무주하고 사유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무주란 것은 주인이 없는 거고

○丁炳煥委員 아니 局長님! 그러면 그 법이 언제부터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몇 십년전부터 있는데 지금 신설된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도로를 관리했습니까? 그걸 굶어서 부스럼을 만들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카피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만한 일을 우리가 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丁炳煥委員 지금 와서 관련법규만 따지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도로관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아마 도로관리는 상대방이 몰랐을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했는지 서로가 그 근거를 못찾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은 그걸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어쨌든 간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는 관련법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몇 십년을 어떻게 했냐구요? 지금 새로 신설된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러니까 그 포장의 주체를 지금 누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 조회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내 사유지에 누가 와서 포장을 한다고 할 경우 반대로 생각해서

사유재산권이 점점 관심이 고조되는 이 시대에 와서는 점점 어려워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풀어질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丁炳煥委員 局長님! 관련법규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해서라도 소유자를 찾아서 포장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난번 한 군데는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시가의 30~50%를 벌써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며칠간 주소지를 추적해 가지고 가서 이런 걸 주민들을 위해서

(○吳弼根委員 議席에서 - 지금 국장님은 자라 보고 놀란 사람 솔뚜껑 보고 놀라는 식이에요.)

저는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吳弼根委員 議席에서 - 다른 데서 집을 먹고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놀라서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소신이 없으니까.)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소신이 있어서 이런 겁니다.

(○吳弼根委員 議席에서 -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찾아서 보상을 해줄 겁니까?)

보상을 하면 해야 되겠죠.

(○吳弼根委員 議席에서 -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을 지금 안고 하면 돈도 안 들고 나중에 주인이 나오면 임자가 없어서 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吳弼根委員 議席에서 - 나타나지 않고 30~60년 돼서 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후에 하게되면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다른 추가부담이 들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이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자꾸만 그러한 것을

○委員長 安載弘 아니 그러니까 局長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은 무주부동산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통해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 흡수할 수가 있고 그것이 구유재산인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취득으로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일정기간 그 토지에 대해서 공고를 해도 그 기간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는 그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서 위원님들 뜻대로 가능하면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安載弘 사유지 부분이라 하더라도 '30년도에 일본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사유지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권이 상속이 되거나 또는 국가에 귀속이 되지 않은 자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지 모르니까 찾아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던 저도 편한데 지금 당장 포장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배수로를 낮춰라 높여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저희들이 당혹스러워서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건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현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야기되니까 그런거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사유지 도로 상의 포장문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 배수로 문제는 현황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議席에서 -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해가지고 여기와서 농성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단농성을 해서 해결되고

(○吳弼根委員 議席에서 - 집단농성을 하면 공권력이 저거 돼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 공권력이 뭐 공권력입니까? 지금 다 그러잖아요? 대모나 일삼고.)

그런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吳弼根委員 議席에서 -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인을 찾아 가지고 동네분들하고 종로구청에 돈이 많으니까 보상을 시켜서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일을 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럼 보상을 해줄 수 있죠? 돈이 많으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게 인정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吳弼根委員 議席에서 - 그리고 아스콘을 깔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줬습니다. 그걸 깔 수 있게. 그런데 저희 동네 아스콘을 깔고 빗물받이 그걸 주철그래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갈아줘야지 일한 것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옛날에 있던 콘크리트로 놔두니까 아스콘을 잘 썩었지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해주는 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세요.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295쪽 지금 영화촬영장 잔고량이 1만 4,561포가 남아 있는데 그 밑에 제일경기단 외 3개 부대에 480포를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반출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있고 보관함에도 있고 그런데 이 청와대 주변 부대도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와 같이 제설하는 기관으로 보셔도 됩니다.

○吳錦南委員 우리 종로구 물품관리조례규칙을 보면 제14조에 의거해서 별지양식으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 군부대로 가든지 하면, 반출이 되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있습니다. 인수중

○吳錦南委員 다음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8억 2,200만원이 남아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이번 월동기에 사용하려고 두신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재해대책기금이니까 월 동기 제설작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진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이 기금은 가능하면 손을 안 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언제 사용하려고 그래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올해 7·8월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그런 부득이한 곳에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걸 쓰는 그런 유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생각 외로 어떤 재해가 발생되면 그걸 양해를 구해서 씁니다.

○吳錦南委員 국장님 말대로 금년 7월달에 큰비가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큰비는 겨울에는 안 오지 않겠습니까? 내년 여름이나 돼야 오죠. 그런데 큰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 곳에서 아마 재해대책에 대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그걸로 공사한 적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우리도 쓰긴 썼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기금은 손을 안 대려고 노력을 해서 시에다 이 기금을 좀 많이 내려달라고 해서 올 여름은 우리 몫도 있습니다만 시청의 몫을 많이 할애받아서 했습니다. 이건 가능하면 저도 아끼고 싶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항의 예비비적인 성격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물론 아끼는 건 좋습니다. 절약은 좋은데 그런 큰 수해피해가 났을 때에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접수가 됐을 때엔 어느 정도의 선에서 큰 것은 시행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우리 신영동에 어떤 의원님이신지는 몰라도 그쪽에다 많이 하셨네요? 그쪽이 이뻐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본 위원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吳錦南委員께서 질의하신 제일정기단 외 3개 부대에 480포의 염화칼슘을 반출시킨 그 관련자료에 인수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인수증을 볼 수 있나요? 그 인수증의 양식은 어느 것에 의한 인수증인지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물품을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관리전환을 하거나 무상양여를 할 때는 물품관리규칙 제14조에

의해서 무상양여합의서를 받게되어 있어요. 그리고 염화칼슘 한포가 우리가 1년에 이 예산으로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물론 인근 부대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보내주는 거는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급기관, 상급행정처의 감사를 받거나 의회의 감사를 받을 때에는 무슨 근거로 그걸 썼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480포를 돈으로 따져서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사용하는 양으로 봐서는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수증을 하나 받고 그냥 물품을 무상양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상양여합의증이 아닌 인수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근거있게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상양여가 아니고 단지 보관의 위치만 옮겨가는 거지 무상양여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쥐버린 거니까 우리가 다음에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럼 무슨 근거로 자치구 예산으로 산 것을 군부대에 준다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주는 게 아니고 보관의 위치를

○委員長 安載弘 아니 그러니까 인수증을 빨리 가져와요.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吳弼根委員! 질의하세요.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관내 간선도로나 골목길에 한전승합기 있죠? 그게 우리 관내에 887개가 있는데 그거 1대 설치해놓고 1년 동안 우리 구에 받아들인 돈이 1,000원씩입니까?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맞습니다.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우리 관내 골목길에 설치된 데가 있는데 소음이나 차가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이전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상위에 있는 것이 통행을 막아 가지고 결국 그

걸로 인해서 사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든 간에 그게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누전이 되고 합선문제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쫓아오지 못해서 모두 지상에다 두는데 앞으로는 지중화로 가야할 것이 아니냐? 방수를 잘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그거 이전에 증과정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우선 큰 골목에서 빠져 가지고 뒷골목에 갔다가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중으로 가는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야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전에서 그러한 자세가 쫓아오지도 못 하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가지고 하자나 전기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이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까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당장 한전하고 의논을 하겠습니까만 성균관대학교 가는 길도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저도 짜증나는데 그 위치를 한번 취보십시오. 의논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다른 장소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는데 찾아봐도 적당한 위치가 없으면 그쪽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할 때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하수계에 하수기동반이 있죠?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이런 게 있더라구요. 혜화동 파출소 앞에 그걸 메워서 해달라 했더니 기동반이 3일을 왔습니다. 왔다가 우리 기술로는 못 하겠는데요 하면서 가고 또 말을 하니까 그 다음 날 와서 우리는 장비가 없어서 못 하겠어요 하면서 3일을 세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 만큼의 수고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분이 하나절을 왔다갔다 했을 때 그 인건비는 1건을 가지고 그러는 걸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수계에서는 장비를 요청하십시오. 그런 정도의 공사는 할 수 있는

도구는 준비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아까 국장님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위치의 변경이 관리전환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사안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지요. 101경기단 외 3개 부대에 영화촬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니까? 물론 그 물품의 관리 주체는 건설교통국 소속의 토목과겠지요. 그러면 그 토목과 자산도 종로구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101경기단 외 3개 부대에 480포를 우선 줬지만 또 눈이 오게되면 더 줘야된다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줬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수증을 받고 줬다고 했는데 인수증이라는 그러한 양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양식이예요?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업무는 규칙이나 조례에 따라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텐데 인수증이라는 것은 어느 규정, 어느 규칙에 의해서 일 처리하는 근거냐 이거죠. 관리전환을 하거나 무상양여를 할 때는 아까 吳錦南委員님이 질의하신 대로 물품관리규칙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매년 거의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지적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거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문제가 나오거든요. 직원 가서 아직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별 것은 아니지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적어도 동사무소나 또는 지역 내 저기가 아닌 타 행정관서나 타 부대니까 그렇게 하시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잠깐 오는 동안에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로 해서 高課長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주차장특별회계는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왜냐하면 공시지가의 가격과 그 다음에 감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아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왜 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安載弘 委員長님 말씀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의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적정부지 선정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가가, 감정가가 토지소유자의 요구액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크게 두 가지로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98년 이후에 '99년, 2001년 현재까지 특별회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특별회계는 소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할 그런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와 감정가의 차이폭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러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위 매도자가 그 땅을 감정가 이하로 매도할 때만 쉽게 설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에 살 때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땅을 매수하는데 적용하는 방법이 그러한 감정가 이내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도라면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은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개선할 방법은 찾아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을 면수를 늘려서 주민들에게 주거편익, 즉 주차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감사를 통해서 의회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거든요. 高課長께서는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安載弘 委員長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할 때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하여간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경우에 따라서 예산의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도 보면 인건비나 경상비로

특별회계 예산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엄격하게 주차장특별회계의 조례에 의하면 인건비와 경상비조차도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쓰면 안됩니다. 대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편상 묵인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은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제가 의원이 된 지 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처음과 끝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공영주차장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오히려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가는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감정가라는 것이 실거래에 미달되게 평가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잘 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 우수한 직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직원들 의견을 듣고 수장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와 관련지어서 서류를 검토했더니 준공검사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건설교통국 소속인데 거의 모든 투자사업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조서가 첨부가 되는데 그 준공검사조서를 보면 검사자하고 입회자란이 있는데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 설계와 관련지어서 준공검사조서를 보니까 검사자하고 입회자가 죄다 교통행정과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검사자와 입회자가 동일과의 직원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보통 검사자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주관과에서 검사자가 되고 입회는 계를 달리한 데서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런데 그러면 준공검사조서의 입회자와 검사자가 날인을 하는 준공검사조서는 무엇에 근거한 조서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서울시 종로구 회계사무취급규정에 검사, 입회 그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달라요.

종로구 재무회계규칙 제123조제2항에 의하면 준공검사 조서는 검사자는 그 공사를 발주한 발주관련 부서의 직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입회자는 재무과 직원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도 역시 준공검사입회조서를 보냈는데 준공검사원 지정 동의서에 입회자를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준공검사조서는 검사자는 교통행정과가 되겠지만 입회자는 재무과 직원이 되어야 돼요. 한번 확인하셔서 제 얘기가 맞다면 이 이후에는 준공검사조서에 입회자를 재무과 직원으로 입회시켜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령증이 왔는데 염화칼슘 250포를 101경비단 경비과 유지황이가 누구죠?

○**土木課長 鄭璣哲** 담당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됐죠. 수령증이라는 제도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분입출납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 인수증이라는 물품관리제도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수령증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수령증이라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여러분들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480포나 되는 염화칼슘을 종로구 재원을 물론 소모품입니다마는 480포라는 염화칼슘을 주면서 여기 250포네요? 딴 데도 줘겠죠. 수령증 하나 해서 제공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廣亨宇**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고쳐야죠. 물품관리규칙과 조례만 읽어보면 돼요. 아까 吳錦南委員님이 얘기하신 대로 14조에 있어요. 거기에는 물품관리조례하고 무상양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무상양여나 관리전환이라고 보고 양식도 근사해요. 그럴듯하고 우리가 내 물건 480포 주면서 인수증 하나 받고 줘니까? 누구 맘대로 줘요? 줘야 되겠죠. 유관부서니까. 제대로 알고 줘야죠. 480포를 인수증 달령 하나 받고 유지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줄 알고 주느냐고. 시중에 염화칼슘 한 포에 12,000~13,000원 하는데 OCI제품 같은 경우에는. 480포면 얼마예요? 500만원이 넘어요. 이걸 인수증 하나 달령 받고 줘니까? 제도에도 없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의 행정감사는 여러분들로서 굉장히 피곤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역시 피곤합니다. 의회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을 주민들이 관청에 원하는 자치단체에 원하는 민원을 어떻게 해소해주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의회의 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 의회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위원님들의 질문에 좀 저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배워야 할, 더 많이 의회에 앞서가지 않는 한 의회에 계속해서 이런 계속되는 질문에 굉장히 저기하게 된다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왔을 때는 적어도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조사하고 더 많이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그 질문에 정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하면 위원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적어도 종로구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丁炳煥委員님도 말씀하시고 吳弼根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답답하게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어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 하면 밤을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의 어떠한 질문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의 행정감사는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시간이 아깝죠. 그런데 건설교통국에 전반적인 질문을 해보고 답변한 것을 보면 어떤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감은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장이나 팀원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고 인정하겠습니

다마는 이후에 또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 감사에서 적어도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지도과가 위원님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사실 건설교통국에 소속된 정말 훌륭한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들 그 다음에 직원들이 계시니까 무려 10여 명이 모자라는 조건 하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과 관련한 민원이 있거나 위원님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정말 내 일 같이 내 일을 해결하는 그런 의지로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9分 會議中止)

(15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위해서 재무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종로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가 구정에 관여하는 유일한 법적 장치로 주민을 대신하여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관리상태 등 구정의 집행이 위민복지를 위하여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시하는 기능

이 있고 또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추진업무를 재점검해 보고 미결을 정리하며 구정방향을 재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민선구청장 2대의 임기 마지막 년도를 맞이하여 금번 감사를 통해 비추어진 구정의 단면 가운데에서 민선자치의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 등은 우리 모두가 자치 행정의 창달자라는 역사의식 속에서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지금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는 시점에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모든 면의 선두에 서서 능동적으로 근검절약하는 예산운영이나 행정관리는 물론 사생활까지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감사를 통하여 비쳐진 구정의 면면 가운데 아쉬운 점이나 반성하여야 할 점 등에 대하여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 관련 분야입니다.

첫번째로 시세에도 징수교부금이 교부되고 있으므로 세입확충차원에서 징수를 제고가 요구되고 있어 시세의 체납요인을 분석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세 소득할의 체납은 국세의 과세자료 통보시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는 바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바람직하며 두 번째로 건설공사 낙찰자가 부당하도급하여 부실공사가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도 내에서 낙찰자에 대한 교육이나 감독 강화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민행정차원에서 등기소의 등기부등본발급 업무를 구민원실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자동발급기 설치 등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기 바람직하며 네 번째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당징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특히 이사철의 전세입자에게 이런 부당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기 바라고 다섯 번째로 2001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한 건설공사 120여 건 중에서 우리 구 관내 건설업자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니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관내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

업체 육성이나 입찰정보의 제공 등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시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여섯 번째로 토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현장확인이나 인근 필지의 현황과 이웃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지구에서는 고율의 보상을 의식한 악의적인 토지등급상향 요청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의신청 처리업무에 획기적인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구 관내 일부 지역에는 지목상 전이 존재하고 있어 이 토지 매매 등의 경우에 농지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하는 등 농지법에 의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농지위원회 등이 없는 우리 구와 같은 경우 본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제도적 맹점을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여덟 번째로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시점이 연말에 집중되어 동절기의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니 조기 발주가 이루어져 동절기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연간 건설공사의 조기발주 시스템을 연구 실천하기 바라고, 아홉 번째로 고액채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자산 조회나 재산공매 절차 등 적극적인 채납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채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취득된 금융자산 정보는 유출이 없도록 정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관허업의 면허세 체납의 경우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관 허가부서에 관허업의 제한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1년도에 세무2과에서 환경위생과에 1,170건의 관허업 제한을 요구하였으나 환경위생과에서는 52건만 접수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규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과간 책임소재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요구건수나 접수처리 건수 등의 비교확인이 일목요연하게 가능하도록 접수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법적제재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라며, 열한 번째로 일선 동사무

소의 회계처리 업무집행에 있어 직능단체용 배경 예산을 동장이 관리하지 아니하고 소관 직능단체에서 직접 관리집행하는 사례 등이 있으니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 등 적법한 회계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인왕산 근린공원은 우리구민의 유용한 휴식처이고 더욱이 2002월드컵을 앞두고 도심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외국인의 관광휴식처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격조 높은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서비스함은 물론 자연보호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 설치를 심도있게 검토 바라며, 동시에 관내 공원의 공중화장실도 월드컵을 대비 화장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원지역 내 산책로를 토사유출 등을 이유로 시멘트 포장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바 토사유출방지는 타공법을 연구하여 시행하고 시멘트 포장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기 바라고, 세 번째로 원서 마을회관을 비롯한 구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관리가 부실하여 굴착 등을 한 후에 공사를 방치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공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현장관리자가 항상 상주하여 공사가 진행되도록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동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를 종전에는 통담당책임제로 단속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최근 동기능전환으로 단속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소규모 무허가 건축행위가 주말을 이용하여 성행하고 있어 도시관리측면이나 사후강제이행금 부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니 무허가건물 단속체계를 재정립하기 바라며 단속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 구 예산으로 소규모공원이거나 공지, 가로등에 식재한 수목이 활착전 고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고사목의 보식이 즉각 이루어져 도시경관을 해하거나 구정의 관리기능에 허점이라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재정비하기 바라고, 여섯 번째로 우리

구는 수도서울의 중심이고 고궁과 문화재가 어우러진 역사적 도시이므로 이에 어울리는 가로수 수종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미관이나 알레르기 유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한 수종을 검토하여 아름답고 품위있는 가로유지에 기여하도록 연구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전·월세 용자금은 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용자금 수혜대상 폭을 확대하고 이율을 경감하는 등 시혜대책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금년도 우리 구의 용자금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바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 구민이 수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여덟 번째로 주거지역내에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주차문제,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편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거환경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별, 다가구·다세대 주택 총량제 등 주택정책의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문제점 제기나 관계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고, 아홉 번째로 보물 제142호인 동묘는 중국의 용장 관운장 위패를 모신 곳으로 월드컵의 중국게임이 한국에서 개최되어 중국관광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관광객의 방문 명소로 개발하여 종로관광을 빛낼 기회로 승화시킬 호기이므로 동묘 주변의 체계적인 정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열 번째로 기존 무허가 건물의 개보수시에는 종로구 무허가건물 단속 및 관리실무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지침상 개보수 대상 건물은 '81년도 이전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한하여 개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5월에 구에서 신고 처리한 구기동 226번지 8호 외 2필지에 대한 개보수 신고처리는 본 건물이 '81년 이전에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신고처리함으로써 종로구 무허가건물 단속 및 관리실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웃간 분쟁이 유발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고처분의 적법조치와 처리 공무원의 책임

추구를 요구합니다.

열한 번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허가 처분에 필요한 법정요건이 도로, 공공 하수도 등 공공청의 소관 사항일 경우에도 현재는 허가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거나 이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불허 내지 반려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부관의 적법성 시비도 초래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공청의 귀책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능동적인 행정 자세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관련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교통국 기능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부서이고 또 동기능전환으로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직원은 정원에서 17명이나 부족하게 유지하고 있어 부서별 기능유지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것이 봉사행정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조속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두 번째로 돌출간판 점용료징수율이 25%,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점용료 징수율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도 극히 부진하여 준법자가 손해라는 법저항 의식만 팽배시킴은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차질이 수반되는 문제가 유발되므로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가 없다는 의식확산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로는 자연취락형태로 조성된 고도이기 때문에 하수망 설치도 노후되고 처리용량도 비계획화되어 우기시 내수침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도 준설업무를 꾸준히 실시하고 우기시 순찰을 강화하여 재난방지에 노력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거지역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운영과정에서 운영주체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익보다는 운영주체의 수익을 고려하여 외부차 주차를 우선으로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가중되

고 있으니 운영문제를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또 지정구역 내 불법주차차량은 즉각 견인하여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이런 체계를 조속히 정비하시기 바라며 또 주차요금이 인하조정도 주민 편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 실정에 맞게 일방통행로 지정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는 경찰업무라는 이유로 추진이 부진하여 이면도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은 도로기능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로 현재 주택가 내 주차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그 이후 주차장 조성에 능장을 부려서 예산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주차수요를 지연시키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구정의 난맥이라는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적지 선정 매입 주차장 조성 등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홍제천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우기 시에는 우수가 범람하여 인근 저지대에 수해피해를 가져오는 취약지역입니다. 현재 수해피해방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하천관리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또 세검 1교 등 하천관련 공사로 인근상가에 영업손실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기준수나 공사장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 구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 시 공함에 있어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나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주시고 특히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는 적정공사비의 보장이 절대적 요소이므로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덩핑행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 방법에 획기적 전환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로 뒷골목 지역의 보안등은 방법이나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이의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민생

안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안등의 부점등이나 자동스위치의 고장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신고하고자 하여도 야간에 동의 당직자가 없고 어렵게 구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신고하더라도 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편요인이 있으므로 야간신고 체계의 확립, 신속한 수리체계의 정립 등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라고, 열 번째로 현황도로의 포장과정에서 지목상에는 도로이나 소유권이 사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포장공사를 시행 과정에 그 구간만 중단한 사례가 있는 바 우리 구와 같은 도시형성이 오래된 구에는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중로통에 노점상으로 인하여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크게 저해되고 있으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으며 열두 번째로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변경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큰 관심사가 되므로 사전에 의회에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열세 번째로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에 있어 동일 인근지역임에도 점용료 부과가 형평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이웃간 민원이 유발되는 등 점용 면적의 산정과 점용료 부과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고 열네 번째로 가회동사무소~감사원간 도로개설공사가 한해에 공사시행중에 설계변경을 3회 했다는 것은 사전 조사가 부족하였거나 설계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공기 지연이나 예산추가 부담 등의 문제가 있으니 향후 사전설계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로 각종 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압류조치 등 채권보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열여섯 번째로 공사관련 관계공무원은 청렴성과 친절성 등 공무원 기본소양에 대해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사업자와의 관계와 또 공사장 주변 주민의 민원사항 수렴에 유념하여 최근의 불미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로 하수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

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면밀히 연구할 것이며 맨홀 설치시 양생기간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성품을 매립하는 식의 공법을 연구 검토하고 열여덟 번째로 주택가 골목주차로 야간에 화재나 위급환자 발생시 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대형사고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야간 21:00시 이후에 소방도로 통행 지장차량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로 전용차선의 실선 설치와 점선 설치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있는 바, 사실조사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스무 번째로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어린학생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간단히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성의껏 개선 보완하여 전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본 위원회 소관 관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들께서는 오전 11시까지 시민행정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4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8人

- 安載弘 吳弼根 吳錦南 玄壽漢
-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金福同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 財務局長 董連浩
-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 財務課長 趙秀完
- 稅務1課長 趙朝翼
- 稅務2課長 徐明一
- 地籍課長 徐燦奎
- 住宅課長 宣圭景
-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 建築課長 李漢九
-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 土木課長 鄭璣哲
-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